

# 가금티푸스 단기간에 잡으 려면 실패한다.



윤 형 수  
봉골농장 대표  
본회 이사

**최** 근 경기북부 및 중부지역에 강타한 폭우로 인해 많은 양계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 농장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강화의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루만에 600mm가 넘는 큰 비로 물이 계사를 지나가는 등 다소 피해를 입었다.

최근 계속되는 비로 인해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난가가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금티푸스에 의한 피해가 습한 날씨와 맞물려 더욱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질병예방에 대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92년 가금티푸스가 처음 국내에 상륙한 이후 이 질병이 들어온 농장들은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엄청난 폐사로 인해 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특히 무창계사 등 대형화 농장에서는 더욱 피해가 컸다. 현재 전국에서 70%가 넘는 농가들이 가금티푸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문 수의사들은 파악하고 있으며 필자가 알기에도 그간 몇 년동안 양계경영에 일각전이 있다는 농가들을 포함해 많은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이 질병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가금티푸스와 벌인 5년간의 전쟁

30년 이상을 양계에 몸을 담으면서 질병에 대해 문외한 이었던 필자가 감히 가금티푸스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농장에 처음 가금티푸스가 들어온지 5년이 지난 지금 채란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질병이 처음 우리 농장에 들어온 것은 '94년 여름 재래계사에 중추 5,700수를 구입하면서부터이다. 이미 질병에 감염된 이 계군은 폐사가 하루에 200수씩 쏟아져 나왔고 이 계군에 의해 새로 신축한 22,500수짜리 신계사에 확대되면서 항생제 등 좋다는 약제를 모두 써보았지만 계속 폐사가 속출해 50%폐사를 보이는 시점에서 전량을 폐기처

분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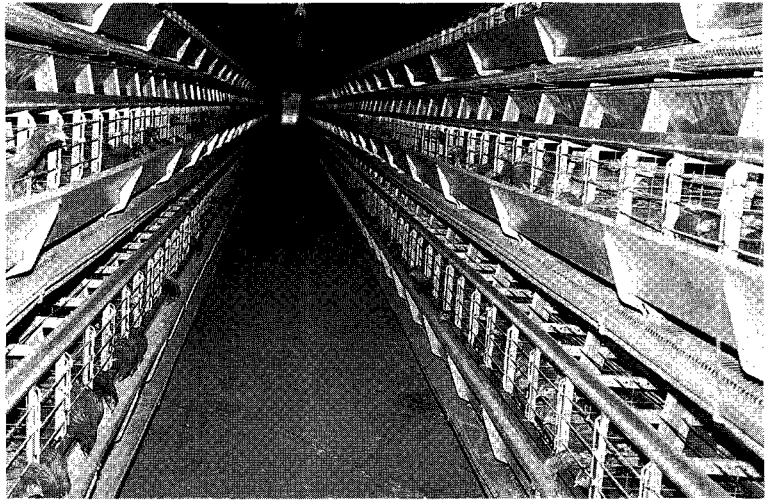
당시만 해도 백신 약제가 개발초기 단계에 있었고 개발이 되었다해도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강도 높게 소독을 마친 계사에 24,000수를 입추시켰으나 설상가상으로 95% 이상의 닭에서 티푸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제 영원히 채란업과는 끝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까지 양계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문성철 씨(한국미생물연구소 백신부장)를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재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중에 있었고 방어능력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백신을 투여하였다. 다행히 이 계군은 가금티푸스 겔백신을 70일령에 한 상태였으므로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110일령에 한차례 더 실시하여 90%까지 피크를 올릴 수 있었다.

그 뒤부터 이 질병이 발생한 농장들과 서로 정보교환을 하거나 농장을 방문하여 이 질병에 대해 나름대로의 퇴치법을 찾기위해 노력했다. 백신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집종의 중요성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을 하였지만 말을 믿으려 들지않았다. 심지어 약품회사와 결탁되어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으며 타 동물약품사들은 전화까지 하여 백신을 해야 소용이 없으니 하지말라는 비웃음섞인 말도 많이 들었다.

필자는 5년동안 닭과 항상 생활을 같이하며



△ 가금티푸스가 사라진 농장내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성계 모습

가금티푸스의 치료법을 완벽하진 않지만 퇴치할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1~2년의 짧은 기간이 아닌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어 국내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 농장에는 95% 이상의 계군에 가금티푸스가 퇴치되었음을 감히 말 할 수 있으며 현재 8만수의 계군이 무리없이 산란에 가세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가금티푸스를 예방하는 방법을 사견임을 전제로 나열하고자 하니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 건강한 병아리 육성과 중추 구입에 신중을

개인 중추육성 농장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키워진 중추를 구입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처음 가금티푸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경로를 보면 우리농장도 그랬지만 대부분 감염된

중추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추육성농장에서는 계란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중추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하한 후 최소한 3개월간 농장을 비워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소독후 바로 육성에 들어가는 경향이 높아 질병에 대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추농장은 믿을 수 있는 잘 아는 농장에서 구입을 해야 하며 반드시 가금티푸스에 대한 백신접종을 권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가육성을 하는 농장중 가금티푸스가 발병했던 농장에서는 병아리의 육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한 번 감염이 되면 닭 일생 동안 관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3. 닭(雉)가 가금티푸스 확산의 주범

어느 농장이든 계사안이 청결해야 질병도 줄어든다. 특히 계사내부는 환기를 자주시켜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게 중요한데 먼지가 많이 쌓인 계사는 닭이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닭이를 없애는 것은 가금티푸스의 5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농장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가금티푸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장을 다녀본 결과 공통적으로 계사내 환경이 안좋았고 100%의 농가에서 닭이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닭이를 박멸하고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이 질병의 확산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였다. 닭이를 박멸하기 위해서 많은 농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력 스프레이로 약제를 섞어 뽑어주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으나 닭이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먼지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닭이

를 박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농장은 먼지 흡입기를 구입해 먼지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느곳 이든 청소를 해 준다. 특히 급이기와 급이기 사이 등 먼지가 깊숙히 있는 곳은 더욱 신경을 쓴다. 그런후 마른 상태에서 이약을 살포한다. 한 번으로 끝내서는 효과가 없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약을 살포하면 한달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닭이를 전파시키는 파리를 없애야 한다. 닭이가 파리의 등에 붙어 이동하므로 주변농장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질병전파의 원인중 하나인 구서작업(취잡이)도 반드시 병행해야만 한다.

### 4. 백신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백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꾸준히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농장에서는 백신을 3번(겔백신 두차례, 오일백신 한차례) 실시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필자는 2번을 하고 있다. 백신 방법은 70~75일령에 1차 접종(겔백신)을, 100~110일령에 2차접종(오일백신)을 닭의 허벅지 부위에 실시하고 있다. 접종반응은 겔백신의 경우 2~3일정도, 오일백신은 6~7일 정도가 소요된다. 백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2주정도 초산이 늦어지며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등 영향을 주고 있으나 폐사에 의한 피해를 감안할 경우 농가에 충분한 이점을 가져오고 있다. 백신제조회사에서는 백신의 방어능력이 아직은 60~70% 선까지 밖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쉬운 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백색계 사육권장 이외에는 이 질병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는 등 이 질병의 방제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 4. 사료의 선택

사료는 매우 중요하다. 요즘처럼 우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료원료에 곰팡이가 함유될 수도 있어 주위가 필요하며 사료빈에 습기가 차 닭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사료의 값만을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품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

필자는 사료회사에 주문사료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사료 보다 5톤당 5~6만원 정도를 더 투자하지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좋다. 일부 농가에서는 효모제를 사료에 섞어 급이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굳이 농가에서 하는 것 보다 사료회사에 주문을 하여 사용할 경우 보다 싼가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문사료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거쳐 항곰팡이성 제제와 닭의 장을 튼튼하게 하는 활성 효모제나 유기산 제제 등을 포함해 사료를 급이하고 있다.

#### 5. 환우는 절대 금지

환우는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닭의 건강을 악화시켜 기금티푸스 병원균이 침투하기에 좋은 표적이 된다. 환우금지는 양계협회를 주축으로 활발히 홍보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난가의 시세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육자들이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며 환우는 곧 질병을 확산시키고 파경을 맞

게되는 주범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환우를 시켜 이 질병에 의해 전량 폐기 처분을 시킨 예를 접할 수 있었으며 환우 이후 감염되어 피해를 보았다는 농장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계의 환우 금지이다. 환우계군에서 나온 병아리들이 자연스럽게 농장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 종계인들이 이를 자각하여 좋은 병아리 보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유능한 관리인들이 농장에 많이 있지만 농장 주인 만큼은 애착을 갖지 못한다. 필자는 기금티푸스가 농장내에 들어온 이후 이를 퇴치하기 위해 정보수집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농장을 떠난 일이 거의 없다. 필자는 질병에 감염된 닭도 약제투여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70% 정도는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산란중에도 폐사가 이어지면 폐사한 닭을 중심으로 좌우 1m에 있는 모든 닭들에게 항생제 주사를 하거나 사료에 항생제와 영양제 등 적절한 치료제를 섞어 폐사가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급이한다.

이 방법은 전 계군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모든 농장들이 백신을 해보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100%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약품회사에서도 방어능력을 완벽히 갖춘 백신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만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더 이상의 티푸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